

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冷戰과 日本

井上 清

INOUE Kiyoshi 京都大學名譽教授

主催：「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執行委員會

主管：台灣事務局・台灣地區政治受難人互助會

協贊：日本事務局、韓國事務局

後援：中國統一聯盟

台灣社會科學研究會

夏潮聯合會

勞動黨

時間：1997年2月22日～23日

場所：劍潭海外青年活動中心（台北市中山北路四段十六號）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冷戰과 日本

井上 清

INOUE Kiyoshi 京都大學名譽教授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冷戰과 日本

井上 清

INOUE Kiyoshi 京都大學名譽教授

1. 美國의 對日占領政策의 대전환

1945년 8월 日本天皇은 聯合國의 對日 포츠담宣言을 받아들여 降伏했다. 日本 전토는 곧 연합軍의 이름이나 실질적으로는 美軍에 의해 占領. 지배되었다(占領軍 總司令官은 美國 元帥 맥아더). 占領 初期, 美國은 포츠담宣言이 日本에 요구한 민주화와 非軍事化를 어느 정도 추진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新憲法의 제정과 실시였다(1946년 11월 3일 공포). 新憲法은 주권재민, 기본적 인권보장, 平和주의(戰力 不保持, 國家交戰權 부정)를 원리로 했다.

그 때 벌써 美國과 소련이 全世界에 있어서의 霸權爭奪을 하는 冷戰이 진행되고 있었다. 美國은 항일전 승리 후, 中國에 있어서 國民黨의 전 中國支配를 목표로하여, 「소련의 앞잡이」로 인식된 中國共產黨 세력을 消滅시키려 했다. 그러나 人民大衆들과 연결된 共產黨은 정치적, 軍事적으로 國民黨에 앞섰고, 48년 초 共產黨의 전국적인 승리가 확실히 전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美國은 對日政策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 이 때까지 美國은 日本을 美國에 있어 無害한 소국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이제는 日本을 동아시아의 「反共의 防壁」, 「극동의 공장」으로 재건하려는 전략으로 전환된 것이다.

2. 朝鮮戰爭과 日本의 재군비 시작

1948년 8월, 朝鮮의 북위 38도선 이남인 美軍占領區域에서 大韓民國이, 同年 9월, 38도선 이북의 소련軍 占領地域에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이 수립되었다(그와 동시에 북에서는 소련軍이 모두 철수했다). 그러나 전朝鮮의 통일통치를 다투어 남북한의 대립이 계속되었고 급기야 50년 6월 25일, 전면적인 戰爭으로 번졌다.

美國政府는 당장 유엔安保理事會에 제의하여 北朝鮮이 적대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했고, 소련대표가 缺席했기에 美國은 어려움없이 목적을 달성했다. 또한 日本국내에서 맥아더 장군은 日本共産黨의 기관지가 北朝鮮측의 정보를 보도한 것을 이유로 기관지 발간 금지를 日本政府에게 지령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共産黨 탄압의 조치가 취해졌다. 반면, 제일美軍을 朝鮮에 출동시키고, 日本상선으로 하여금 美軍의 군수물자를 한국으로 실어나르게 했다.

7월 8일 맥아더는 日本政府에게 7만 5천명의 國家警察豫備隊를 창설케하고, 海上保安廳의 정원을 8천명으로 증가시킨 海上保安隊 창설을 명령했다. 그 經費는 그해 국가예산 중에서 상식밖으로 큰 액수로 책정된 國債償還費에서 유용하도록 지령했다. 日本政府는 이 지령을 신속히 실행, 8월 10일 警察豫備隊令을 공포, 23일에는 벌써 전국에서 7천명의 예비대원을 입대시키고, 년 말에는 7만 5천명의 예비대창설이 완수됐다. 舊日本軍 將校와 하사관의 公職追放을 解除해, 그들 가운데 예비대의 훈련과 교육을 담당할 지원자를 모집했다. 이런 대사업이 이렇게 빨리 완료된 것은, 朝鮮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占領軍과 日本政府가 이를 극비로 준비했던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구군인들의 추방이 解除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 관료, 경찰관, 여러사회단체 간부들 중에서 軍國主義, 過激國家主義者로서 추방되었던 사람들까지도 잇달아 추방이 解除되었다.

政府는 警察豫備軍은 美軍이 朝鮮전쟁에 출동한 후 일어나는 日本국내의 치안공백을 메꾸기 위한 문자그대로 경찰의 예비대로서, 日本의 재군비의 첫걸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52년에는 警察豫備隊가 保安隊로 되어 海上保安廳의 海上警備隊와 더불어 保安廳으로 됐고, 또 2년 후에는 保安隊는 陸上自衛隊로, 海上警備隊는 海上自衛隊로 새롭게 개편되고, 空中自衛隊(공군)도 창설되어, 각 自衛隊는 幕僚監部(참모본부)를 각각 두었고, 이들의 統合幕僚監部도 만들어졌다. 그의 장교, 하사관 양성학교, 의료위생기관등을 갖춘 근대적인 육, 해, 공군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되니 自衛隊를 군대라고 말할 수 없어 당시 政府는 “自衛隊는 군대이기는 하지만 現代戰에서 有效하게 싸울 수 있는 「戰力」은 아니다. 그러니 戰力을 안갖겠다고 정한 헌법 제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自衛隊는 「戰力없는 軍隊」다”라는 궤변을 부렸다. 이윽고 自衛隊의 육, 해, 공군의 장비가 현대세계의 일류장비에 이르자, 아무래도 「전력없는」라고 할 수 없어져서, 이번에는 “自衛를 위한 군대는 헌법위반이 아니다. 자위를 위해서는 核武器까지 가져도 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발언하기 시작했다(57년 岸信介수상).

3. 單獨講和와 日美安保條約, 日臺條約

日本의 재군비를 위해서는 포츠담宣言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즉 被占領상태를 끝내기 위한 聯合國과 日本과의 講和條約이 필요했다. 그리고 日本을 美國에 협력하는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占領軍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닌 독립국가 日本과 美國과의 條約에 의한다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日本이 완전히 자주, 자유를 획득하여 美國의 통제가 미칠 수 없어지는 것은 곤란했다. 이 두가지 요구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美國이 노린 것은 첫째로 對日講和는 소련과 中國(49년 9월 共産黨이 지도하는 中華人民共和國이 성립되고 동년 말에는 蔣介石과 국민당 中華民國 政府는 中國본토에서 臺灣으로 쫓겨나 있었다)을 제외한 美國진영과만 맺는 것, 둘째로 그와 동시에 日美양국간이 條約을 맺어 美軍이 日本에 필요 한 만큼 주둔하여 占領軍과 똑같은 지위를 누리는 것이었다. 美國은 이러한 大方針에서 對日講和에 임하여 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對日講和會議을 열어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다. 따라서 講和條約은 日本과 美國진영의 여러 나라들하고만 맺기로 했다. 中國대륙의 인민공화국 대표도 臺灣의 국민당政權의 대표도 會議에 초대받지 못했다. 소련은 會議에 초대받아 참석은 했지만, 美國이 독단으로 만들어 밀어부친 條約안에 동의하지 않아 美國이 노린 대로 되었다. 또한 條約의 영토조항에서는 오키나와와 西南諸島에서의 美軍의 계속된 占領지배가 보장되었다. 講和會議가 끝난 그날, 日美양국政權은 「日本國과 美國사이의 安全保障條約」에 조인했다. 이에 따라 美國은 日本에 무제한으로 육해공군을 배치하는 권리를 가졌다. 그 군대는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平和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고, 日本國의 「대규모 내란 및 騷擾」를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사용할 의무는 없는) 것 이었다.

이와 같은 講和, 安保의 양條約에 대해 사회당, 共産黨, 그리고 많은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성 단체, 학생조직, 시민단체, 여러 지식인단체가 맹렬히 반대하여 「全面講和, 외국에 軍事基地 제공반대, 全占領軍의 즉시 철퇴, 日本의 재군비반대」의 함성은 日本전국에 울려 퍼졌다. 이에 앞서 천황 裕仁(히로히토)는 新憲法으로 인해 국정에 관한 권한이 아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美國측과 접촉하여 美軍이 오키나와를 오랫동안 지배할 것과 講和條約후에도 美軍이 日本에 주둔할 것을 희망했다.

국민대중의 강한 반대도 政府, 여당, 경제계, 천황을 이기지 못했다. 양條約은 52년 4월 28일, 즉 히로히토 생일전날에 발효됐다.

같은 날, 臺灣의 中華民國政府와 日本은 「日華平和條約」을 조인했다(8월 5일 발표). 이에 앞서 51년 12월 吉田수상은 美國의 對日講和담당자인 달레스에게 편지를 보내, “日本은 「中國의 公산政權」과는 결코 講和條約을 맺지 않겠다. 반드시 「中華民國」과만 講和를 맺겠다. 이 條約은 「현재 中華民國 國民政府의 지배하에 있고 또한 앞으로 그 영역에 들어 올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고 약속했다. 日本의 中華人民共和國에 대한 적대, 臺灣에 있는 反共政權 절대지지, 臺灣政府의 대륙본토에의 歸還期待는 여기에 확약되었다.

朝鮮에서는 개전직후, 美韓軍이 北朝鮮軍에게 압도당했지만 얼마후 全在日美軍의 朝鮮출동으로 50년 10월에는 美韓연합軍이 北朝鮮 영내에 깊이 진격했다. 이 때 中國人民義勇軍이 北朝鮮측에 참전했다. 이로인해 美韓軍과 朝中軍이 38도선의 남북에서 일진일퇴의 격전을 거듭했다(53년 7월 남북의 정전협정 성립).

또한 朝鮮戰爭이 시작되자마자 美國은 臺灣과 中國본토간의 바다를 봉쇄하고 中國인민政府의 臺灣통일을 무력으로 저지하는 태세를 취했다. 日臺條約과 吉田서간은 美國의 이러한 정책과 일체가 되었다.

4. 經濟復興과 新安保條約, 帝國主義 復活

朝鮮戰爭에서의 美國의 각종차량, 항공기, 銃砲수리, 탄약 그외 막대한 군수품 수요가 日本産業에게 생겼다. 이러한 소위 「特需」에 의해 日本경제는 막대한 달러資金を 얻어 日本기술의 후진성을 만회하는 기회를 얻었다. 중공업, 화학공업이 대규모화하고 패전전보다도 높은 수준의 설비 투자도 번창했다.

政府의 「경제백서」56년도 판은 “이제는 전후가 아니다”라고 자랑했다(여기의 근본에는 농지개혁, 여성해방, 그외 민주개혁으로 인한 국내시장확대, 노동력의 질적 향상 등이 있다).

日本의 지배세력은 경제력에 자신을 되찾음과 동시에 지극히 노골적으로 불평등한 日美安條約의 개정을 원했다. 美國도 日本의 요망에 응하여 59년부터 日美安條約 개정 교섭이 행해져 1960년 6월에 새로운 美國의 「日美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이 성립됐다. 이것은 조문상으로는 日美대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美國이 舊安條約과 같은 권리를 갖고 日本의 軍事대외정책을 美國에 종속시키도록 운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新安條約에 대해서도 이전의 講和, 安條반대운동보다 더한 국민의 맹렬한 반대투쟁이 일년이상 계속되었으나 政府와 여당은 결국 강행했다.

新安條約으로 日本은 美國과 종속적인 동맹관계를 맺는 반면, 美國을 이용하여 자기자신도 帝國主義의 길로 걸어나갔다. 그것은 新安條約직후부터 美國의 강한 요청에 따라 시작된 日本과 한국과의 국교회복을 위한 日韓회담과 그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日韓회담은 1952년 2월 본會議 개시로부터 65년 6월 타결에 이르기까지 13년 4개월이나 걸렸고 그동안 6번이나 중단되었다. 중단의 계기는 한국내의 정세가 불안전했다는 점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日本이 1910년 한국합병을 정당화하고 그 후 식민지 지배까지도 한국을 착취, 억압한 것이 아니라 경제, 문화를 발전시켜 한국에 좋은 일을 해 주었다는 등의 망언들이 나와 그 발언에 한국측이 격렬히 반대한 데에 있었다.

日韓條約은 1) 日本과 한국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 2) 日本은 한국에 대하여 유상무상의 政府원조 5억달러, 민간자금 원조 3억달러의 경제원조를 할 것, 3) 日本에 있는 朝鮮미술품의 일부를 한국에 증여할 것을 정했다. 1)에서는 한국을 朝鮮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적 政府」라는 인정하는 귀절이 있다. 이것은 北朝鮮의 합법성을 부인하는 의미를 지녔다. 2)에서의 「경제원조」는 한국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던 日本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의 뜻은 전혀 없고 日本이 새롭게 한국에 경제진출을 하는 길을 얻은 것이었다. 3)의 미술품의 「贈與」는 日本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朝鮮미술품의 일부를 「증여」한다는 것이지 朝鮮에서 약탈한 미술품을 반환하라는 한국의

요구를 전면부인하는 것이 었다.

日韓회담중 64년 8월 日本은 한국에 2천만달러의 「긴급원조」를 결정했다. 이때는 美國이 베트남침략의 대전쟁을 시작한 때여서 한국은 2천명의 병사를 美國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내려 그 병사들의 장비와 그외 경비를 日本이 「긴급원조」한 것이다. 또한 이때 日本은 美國의 괴뢰政權인 남베트남 「政權」에도 150^만달러의 「긴급원조」를 했다.

日韓條約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日本의 베트남전쟁과의 관련은 日本의 제국주의, 군국주의가 부활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5. 軍事大國 日本

日本은 54년 自衛隊 발족 이래, 해마다 군비를 계획적으로 확장해왔으나 그것은 美國의 MSA원조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다. MSA원조에는 무상과 유상이 있으나 日本은 주로 무상원조를 받아 그것으로 육, 해, 공군의 최신 첨단장비를 충족해왔다. 美國은 원조를 유효하게 집행한다는 구실로 將官級을 장으로하는 對日軍事원조 고문단(MAAG-J)을 日本에 주둔시켜, 그것을 통하여 自衛隊 3軍편성과 훈련의 실권을 장악하여 日本의 軍事생산기술까지도 美國에 종속시켰다. 그러나 日本의 경제력, 기술력의 향상과 더불어 軍事원조고문단은 점차 축소되었다. 美國은 1964회계년도(64년 7월-65년 6월)에서 무상원조를 끝냈다. 그것과 함께 MAAG-J가 自衛隊를 훈련지도하는 것도 끝나고 그 인원도 대폭감소, 소액의 유상원조에 관한 단순한 사무기관으로 되었다. 日本自衛隊의 장비에 관한 대미의존은 이로 끝났다. 그러나 그간에 이미 自衛隊 장비는 물론 부대편성도 한국, 臺灣의 군대와 같이 완전히 美國식으로 되었다. 美國은 필요한 경우에는 美國의 총지휘아래 미, 일, 한, 대의 연합軍을 편성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부대편성 및 훈련을 통일했던 것이다.

日本은 美國의 軍事원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78년부터는 역으로 美國을 원조하게 되었다. 「베려예산」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주일美軍을 위한 지출이 바로 그것이다. 주일美軍의 막사나 가족의 주택, 학교등의 시설정비는 條約상 美國측 부담이었으나 1978년부터 日本이 부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단지 美軍에 대한 「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政府는 말한다. 그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6년에는 2,735억엔였고, 앞으로도 해마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의 日本은 공군과 해군은 아시아 최대, 최강이고, 육군의 인원은 많지 않으나 장비는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 매해 軍事예산은 美國,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다. 政府의 「방위백서」96년도 판에 의하면 94년 세계 각국의 「국방비」는, 美國이 278,730,000,000달러로 세계 1위, 러시아가 106,927,000,000달러로 2위, 3위는 日本으로 44,600,000,000달러이다. 中國(臺灣을 제외함)은 국토면적으로는 日本의 22배, 인구로는 10배가 되지만 국방비는 日本의 62%밖에 되지 않는다.

6. 해외 파병

日本國헌법에 의하면 日本은 「전력」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해외출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세계일류의 대전력을 가져 해외출병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 91년 美國을 중심으로한 다국적軍의 이라크공략 전쟁에서는, 전투종식후 페르시아만의 기뢰를 제거하고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핑계로 日本의 해상自衛隊가 구축함과 掃海艇艦隊를 파견했다. 舊大日本帝國 해군의 軍艦旗와 日章旗가 나뉘기는 군함이 다시 동남아시아의 해역.인도양을 통해서 페르시아만에 출동한 것이다. 언이 92년에는 캄보디아에서의 유엔의 PKO에 육상自衛隊를 참가시켰다. 공군의 해외출병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으나 그 준비는 벌써 충분히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유엔의 활동에 참가한다는 형태일 뿐 日本단독의 활동은 아니라고 하지만, 日本의 해외파병 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83년 나카소네 수상은 美國에 가서 레이건대통령과의 회담후, 日美는 운명공동체이며 日本은 불침항모라고 했으며, 만일의 경우 시베리아 연안 기지의 소련해군이 태평양에 나갈 수 있도록 3海峽을 봉쇄하겠다고, 日本에서 서쪽과 동쪽에 각각 천海里的 海上回廊을 지키겠다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태연히 했다. 그리고 지금(1997년), 日美安保條約을 전세계적인 軍事동맹으로 발전시키려고 日美양국은 합의하고 있다.

日美軍事同盟을 유효하게 기능시키기 위해서 오키나와의 美軍기지는 제일 중요한 위치.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오키나와의 美軍은 72년까지 오키나와 占領지배자였고, 동년 오키나와의 시政權이 日本에 반환된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占領軍과 같이 오키나와 인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오키나와는 바야흐로 美軍이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인도양, 중동에 전개하는 軍事행동의 최중요 기지로 되어 있다.

맺는 말

동아시아의 冷戰에 있어서 日本의 지배층은 일관되게 美國帝國主義의 종속아래 반제민족해방 세력에 적대해왔다. 그간 日本은 폐전 이전보다 고도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세계 제 3위, 아시아에는 단연 뛰어 난 거액의 軍事비를 해마다 지출하고 세계각지에 파병하는 軍事대국이 되었다. 日本인민은 이 길에 반대하여 투쟁해왔지만 결정적인 곳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에 전면적으로 대답할 힘이 나에게서 없다. 지금은 두가지만 말하기로 한다.

첫째, 근대사를 통해서 제국주의 민족으로서 성장한 日本인은 전후에도 朝鮮, 臺灣, 中國본토를 비롯한 아시아의 민족해방투쟁에 공감하여 이해하고 공동으로 투쟁하는 정신, 능력을 충분히 성장시키지 못했다. 예를 들어 65년 日韓條約 체결시에 그 條約에 반대하여 한국민중의 투쟁은 강했지만, 日本인은 이때 한국인에게 호응하여 공동으로 연대제휴하여 대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다. 우리들의 곁기는 늦었고, 한국인민들이 軍事政權의 철처한 탄압으로 인해 후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후 條約은 이미 조인되었고, 日本국회가 條約비준을 할 단계에 가서야 條約비준 반대투쟁이 발전되었으나 이미 너무 늦었던 것이다. 좀더 빨리 한국인민들의 공동으로 투쟁했다면 사태는 좀 더 달랐졌을 것이다. 이 일은 우리들에게 아시아 인민들과의 공동적인 연대를 키우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

둘째, 日本인민들의 대다수는 근대 日本의 천황제의 끊임없는 침략전쟁에 대하여 진실을 모르고 따라서 반성하지도 않았다. 제 2차 세계대전 에 대해서도 인민들은 日本폐전의 실상을 잘 몰랐고 日本의 降伏을 촉진하는 힘이 전혀 될 수 없었다. 日本의 降伏은 천황과 그 주변의 최고급의 군인.관료들만으로 결정되었고, 천황이 그것을 전국민들에게 방송했다. 그 방송은 日本이 대패했다는 것마저 솔직하고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降伏」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國體護持」(천황의 日本국 지배를 보호하는 것)를 할 수 있었다는 기쁨을 강조했다.

또한 美國의 지배층도 降伏한 천황의 전쟁책임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맥아더 장군은 천황의 日本국민들에 대한 神으로서의 권위를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았다. 그는 극동국제 軍事법정에 천황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할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증인으로서 법정 에 세우는 것 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대日本제국의 유일하고 최고의 통치권자이며 통수권자인 천황의 책임이 조금도 문책되지 않았으므로 천황의 명령에 따른 군인이나 관료, 국민들의 전쟁책임을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이리하여 전후 日本은 위에서 아래까지 무책임한 나라가 되었다.

최근에 日本의 大臣이나 정당간부들의 근대사에 있어서의 日本이 일으킨 모든 전쟁이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日本이 朝鮮, 臺灣, 中國동북지방을 식민지로 하여 압제.수탈한 사실을 부정하고, 또 占領지에서의 日本軍이 행한 무수한 잔학행위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 잇달고 있지만, 그것의 밑뿌리는 천황의 전쟁책임 부정과 통한다. 우리들은 천황.천황제의 침략전쟁책임을 명백히 하지 않고서는 아시아 인민들의 민주.平和.반제투쟁들과의 연대를 키워나갈 수 없을 것이다.